

애국애족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자주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성상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역사가 흘러갔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공군사위에서 하신 역사적 언설에서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회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찬란한 새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명령하시였다.

우리 당의 자주통일위업은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이다. 그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고비를 우리 당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놓고 민족의 이익에 모든것을 희생시켜서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넘어왔다.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애국애족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이 땅에서 거룩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워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나가려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 위업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최전선의 과업이다.』

우리 당의 자주통일위업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 전진하는 영속적인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 70년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배국, 애국애족의 두 로선으로 치열한 투쟁의 역사이며 통일애국역량과 자랑스러운 승리를 수놓아온 역사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방법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애족의 명도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광범한 민주주의애국력량을 묶어세워 조국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는것을 자기의 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

신이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는 뚜렷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국통일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로 지향시킨 우리 당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조국통일 운동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셔며 줄기차게 전진하여 왔다.

조국통일위업은 승리로 이끌어 나가지만 올바른 지도적지침이 있어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전지하여온 로선들은 가장 애국애족적인 민족자주로선, 민족대단결로선이다. 거기에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자들을 우리 당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놓고 민족의 이익에 모든것을 희생시켜서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넘어왔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면전통일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헌장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일관하게 전지하신 하나의 조선로동당 그 투쟁에서 쌓아오신 귀중한 경험에 기초한 불멸의 조국통일대원칙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 어려있을 조국통일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주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어 밝혀주시였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칙의 자주통일의지와 현실적인 로고의 빛나는 결실로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따르는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에 씩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그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데서도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고정당성과 리성이 확증된 전세위원들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속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게 하려는 민족의 운명을 승리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자주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 민족회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하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정의의 애국위업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 전진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의 근본사명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고 그것을 떠나 애국애족을 논할수 없다. 외세에 의해 우리 조국이 틀러 갈라졌고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해나가는것은 자주의 길을 걷고야 관철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70년전 미국이 우리 조국의 절 반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한 남조선 행렬로써 전체 조선민족의 처사는 격분을 자아내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분열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분열과 고통을 들뜨우겼을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항시적인 전쟁위협까지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였다.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장 장 70년동안이나 분열의 비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상없을 수치이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한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이니 가장 정당할 것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에 관한 문제로써 누구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누가 대신해줄수 없다. 민족자주는 곧 애국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것을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자기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가장 높이 체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귀중히 여기는 당

의 명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우리 당의 결단한 투쟁에 의하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은 철저히 분쇄되고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되였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언제나 민족중심을 추종하여왔다.

민족중심은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애국애족의 립장으로서는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이 자기의 명도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리익과 요구권을 절대화하고 민족적리익을 희생시키려는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옹호하여 명도화할수 없다.

우리 당이 조국통일운동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은 조국통일방안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거제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시 하는 애국애족의 립장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조국통일의 근본조성으로 되고있는 자주, 평화로이,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민족대단결 총서인 전면전통일10대강령, 통일공약의 위대한 결실로써 밝혀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거제의 심장마다 애국애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장 장 70년동안이나 분열의 비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상없을 수치이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한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이니 가장 정당할 것이다.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거기 모든것을 희생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의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이 펼쳐온 애국애족의 명도적리념이 나타나 있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우리 당의 당도발에 조국통일의 주제를 비시각적으로 강조하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온 그 근본조성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을 통하여 강화된다. 민족의 대단결에 조국통일위업을 승려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방정에서 순간도 망각할수 없는 중대과제이며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단면대위업의 전방지배본이다.

우리 당은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대결의 기초로 삼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굳게 단합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이 펼쳐낸 인덕정, 광복정치는 민사합을 차질없이 함으로써 단아주는 승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광복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 세우는 가장 폭넓은 단합의 정치이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서 시종일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해왔으며 그를 위해 광복정치를 실시해왔다.

분열로 하여 생겨난 사상과 계급의 차이보다 단면전의 민족공화국을 이어서온서 통일된 민족적공화국과 민족공화국의 리익이 훨씬 더 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면전통일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광복정치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온 겨레의 심금을 울려주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적위업에 애국애족으로 확대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인 사상과 계급의 차이를 절대화하며 애국애족의 화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인내성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궁극적목적도 애국애족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사합이라고 많이 묶어주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주제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민족분열로 인한 사상과 계급의 차이로 하여 동족에 대한 친척인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어느 한 계급이나 당파의 리익만을 옹호하지 않는다. 설사 지난날 민족애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배제하고 관용으로 대하여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단합해나가는 우리 당의 립장은 변함없이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민족사적사건이다.

북과 남과 리념이 다를지라도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면서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굳게 손잡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민족사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당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대담한 결단, 넓은 포용력을 떠나 격동의 6.15공동선언을 결코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명도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3대력량은 끊임없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거족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고귀한 경험과 전통은 민족문제해결의 참다운 길잡이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든든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은 애국애족의 기치하에 전진미답의 장구나 모퉁이를 헤쳐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자주통일에 대한 신념을 더욱 억양하고 그 승리를 확정짓는다.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다. 오늘 조선민족은 힘이 없어 별강들의 각축전으로 망국노의 가슴아픈 설움을 강요당했던 어제날의 악소리를 내다본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명운은 이미 과거사로 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배움을 확인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중의 업적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려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것이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한차폐의 전쟁을 겪어보았고 항시적인 핵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통괄하는 그 어떤 간섭과 침략위협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역경은 승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오는 온갖 침략기도는 산산이 깰려지고 민족의 운명은 두번다시 구원되었으면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우리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져 온것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적 각인이 결실을 이룬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막대한 도전에 부딪칠수록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억세게 높이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올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필승의 신심드높이 이 땅에서 강성발전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진군길을 내셨다.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로선이 있고 불패의 당의 명도가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는 양양하고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것이 지난 7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해마다의 우리 겨레가 다시금 가다듬어 가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공파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결이 없다.

자주통일이 우리 민족의 불멸의 진로가 있고 그 길에 온 겨레의 합당한 존엄과 평등한 번영이 있다.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를 물려줄 열망이 있는 한 투쟁에 펼쳐나선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박철준

자멸을 앞당기는 력사구테라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유신》 독재부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항의의 규탄의 목소리가 증쇄되고 있다.

지난 12일 남조선당국이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정부》가 만든 력사교과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교과서제》라는것을 공식발표한것이 그 직접적 증거로 되고있다.

집권당이 부활 《유신》 독재부활을 피는 이 되어 돌아온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자라나는 새 세대의 정신형성에까지 독재시대의 오물을 주입시키려는것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시대배국과 파쇼독재, 동족대결로 일관적으로 이어온 과거사를 찬미하고 저들의 반통일책이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절대로 목과피할수 없다.

《국정교과서제》로 말하면 《유신》 독재자가 학생들에게 《출발의 국가》를 세워준다든 간판은 내 놓고 1974년부터 도입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력사관을 심어주며 교육을 진화발전의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출신자 투쟁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민간출판사들에서 발간한 력사교과서들을 검정받지 사용하지 않는 《국정교과서제》로 바뀌어져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정교과서제》가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이 한사

코 《유신》 독재의 오물을 다시 끄집어내어 전지하려는것은 사회정정의와 진보세를 향하는 남조선인민에 대한 우롱이고 악랄한 도적이다.

력박 《정권》 시기에도 《과거책》을 펴내며 력사교과서개작들이 벌어졌지만 현실정세와 같이 《국정교과서제》 부활을 공명연히 들고나오지는 못했다.

이것만 보아도 《유신》 독재부활을 위한 현 부수당국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남조선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에 의해 강행되고있는데 있다.

그가 《국정교과서제》와 관련된 《출발의 력사》를 운운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력사, 철학의 저술사, 인문철학의 파쇼독재자의 의미한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이런에 남조선의 거의 모든 력사학도와 대학생들이 《국정교과서제》 집행을 항가하는것을 거부한 사실만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결국 이제 남은것이란 권력의 시너로 전락된 력사외교전문가들인데 그들은 이미 잊혀진 력사 《유신》 독재자를 찬미하는 력사교과서를 집필하여 《택배물 0%》라는 오명과 배국노라는 딱지가 붙은 사비전 문가들이다.

이런자들이 집필하는 《국정교과서》라는것은 남조선의 장기적전야망실현의 도구로 필자여하는것은 불모의 명백하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국정교과서제》 부활책동을 통하여 사

회전반에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들이 반 《정부》, 반미, 《북한양》의 내용을 《주입하고 있다.》. 《주제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느니 하고 비리정을 동부며 우리의 존엄과 체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공화국의 영성을 해치는 것을 심히 외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조선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쳐우는 등의 내용을 대량 삽입하고 있다.

이것이 북남사이로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격화하는 결과밖에 초래할것이다 없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정의와 리, 력사를 마구 외곡하며 자라나는 새 세대에 대해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적대시하는 주입시켜 《제정당일》 야망을 이루어보자는것이 보수세력이 일으킨 력사구테라의 불순한 목적이다.

력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은 남조선관계의 앞길에는 또다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있다.

남조선보수당이야말로 저들의 미칠만한 정치적목적에 위해서라면 북남관계의 전도, 민족의 운명을 안중에도 없이 력사의 진실까지 부정해도 도발과 대결을 일삼고 있는 력사의 오물물들이다.

오물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력사와 인명을 여행하다가 자멸의 불우한 운명을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운남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꾸뚝이 이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세대 동포청년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자이며 앞날의 주인공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것은 새 세대 동포청년들이 어떻게 키워나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며 졸업생들은 부풀어오르는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정는 모에, 사랑하는 사람말에 한 것 마는나.

애국의 초소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청년 재일조선인 학교 57기 졸업생들의 가슴속에서도 애국위업의 고수를 위해,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갈 의지가 차질없이 있다.

정치경제학부 졸업생 김경덕 청년은 남다른 영광을 지닌 행복이다. 이대전 조국에서 성대히 진행된 60년 종공축에서 참가하였던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문을 썼었다. 흥분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은연을 가슴에 품고 세진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코로에서 조형인으로서 사업하게 되였다. 청년대장군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는 조국의 술전에 심

장의 박동은 맞추어 재일조선청년운동의 믿음직한 기수로 자라나려는 열일만고 그는 불공 청년들속에서 삼달된 그들의 가슴속에도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던 재일동포 청년 김경덕 청년은 재일동포청년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 결심을 바꾸었다.

후쿠오카현 사립에서 사업하게 된 그는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나가고있다.

후쿠오카현 사립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청년 김경덕은 늘 리 리 떠나 흥분 오카마조청년회에서 사업하게 된 교육학부 졸업생 백정기 청년은 재일동포청년들의 힘에 의하여 북남사적사업에서 협력되었다. 이것은 대한국인민주의의 확신을 아낌없이 기울여 주고있고 그가 기울인 귀중한 노력의 결실이다. 유치원교양원으로 첫발자국을 내딛던 김경덕은 불과한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아름다운 미래가 설계되고있다. 장차 모교인 흥남 후쿠오카조선학교에 심

학교에도 유치원을 내오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어제 이틀째날. 일본과학생들이 압도하는 것처럼 우수한 연구성과를 꼭 이룩하여 민족의 슬기를 과시했다는 동포사회에 새 힘을 얻어주었다는 동포학부 졸업생 김우정 청년, 재일동포들의

미더운 《코마신보배우원》들

다음에 1월 창립 70돌을 맞는 흥남 도교조성 2교공과교에는 남다른 전통이 있다. 학생들이 해외활동시간에 《코마신보배우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저지마다 손에 《조선신보》를 들고 교문을 나선다. 동포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신문물 배부하는 그들의 열렬한 활동은 남다른 긍지와 기쁨이 넘실거린다. 이런 풍경이 한두해도 아니고 50년째 중단없이 펼쳐지고있다는 보는 사람, 들리는 사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학교에서는 소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조선신보》 배부 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오카마조청년회는 주로 졸업반인 6학년 학생들이 진행하고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이 활동을 맡아하고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것이 없다. 학교교육회 회장인 송현진동우는 30여년전 이 학교의 소년단체도원이었던 김경덕 청년의 열렬한 열의가 결실을 맺어준것을 말하며 이 열의가 활발히 전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외국어학부 졸업생 강소희 청년...

단명한 조선사람으로 키워온 사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애국의 구슬땀을 뿌려가는 세대들, 그 모습이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울까.

미더운 《코마신보배우원》들

다음에 1월 창립 70돌을 맞는 흥남 도교조성 2교공과교에는 남다른 전통이 있다. 학생들이 해외활동시간에 《코마신보배우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저지마다 손에 《조선신보》를 들고 교문을 나선다. 동포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신문물 배부하는 그들의 열렬한 활동은 남다른 긍지와 기쁨이 넘실거린다. 이런 풍경이 한두해도 아니고 50년째 중단없이 펼쳐지고있다는 보는 사람, 들리는 사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학교에서는 소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조선신보》 배부 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오카마조청년회는 주로 졸업반인 6학년 학생들이 진행하고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이 활동을 맡아하고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것이 없다. 학교교육회 회장인 송현진동우는 30여년전 이 학교의 소년단체도원이었던 김경덕 청년의 열렬한 열의가 결실을 맺어준것을 말하며 이 열의가 활발히 전

행되고있었다고, 그만큼 력사가 깊고 그것이 그의 꿈이다.

이것이 지난 7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해마다의 우리 겨레가 다시금 가다듬어 가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공파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결이 없다. 자주통일이 우리 민족의 불멸의 진로가 있고 그 길에 온 겨레의 합당한 존엄과 평등한 번영이 있다.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를 물려줄 열망이 있는 한 투쟁에 펼쳐나선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박철준

행되고있었다고, 그만큼 력사가 깊고 그것이 그의 꿈이다.

이것이 지난 7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해마다의 우리 겨레가 다시금 가다듬어 가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공파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결이 없다. 자주통일이 우리 민족의 불멸의 진로가 있고 그 길에 온 겨레의 합당한 존엄과 평등한 번영이 있다.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를 물려줄 열망이 있는 한 투쟁에 펼쳐나선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박철준

박철준

《씨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의 《씨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통일운동가들은 6월 11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일본과의 동맹수축과 《씨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무성 부장관이 서울에 날아들어서 남조선당국에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씨드》의 남조선배치를 강요하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과 미국, 일본 3각비밀방위체제와 동맹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규탄하는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파

거외약을 묵인하며 로골적으로 비호하고있을뿐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화책동을 적극 지원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씨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남조선이 미국주도의 미사일 방위체제에 편입되어 동북아시아에 대항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할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이로 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지역의 평화가 파괴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그들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정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2일 서울의 청와대주변에서 미국제전투기 도입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며 판권을 넘겨주려는 계획이 파탄된것을 비롯하여 세련된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민중을 속여왔다 밝혔다.

당국이 새로 구입할 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혁신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할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 《F-35A》 전투기의 도입을 강행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그러하여 이 전투기의 도입으로 새형의 전투기개발을 위한 기술과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던 《정화》의 계획이 실패를 겪게 되고 판권과 지적재산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된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단체는 지금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혁신기술을 넘겨받지 않아도 자체로 전투기개발이 가능할것처럼 주장하는것은 사태의 장본인들을 죄를 덜어주려는 또 하나의 눈속임, 집권자

에게 그 책임을 가는것을 차단하기 위한 허풍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죄하였다.

전투기개발사업이 군사적, 작전적단위만이 아니라 정부차단 단에 따른것이라는 건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제전투기 도입정지 청와대나 현실적인 정치적판단에 의한것임을 보여준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미국제전투기 도입결정은 군사적 측면으로나 재정적 측면으로나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특히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압력과 미군주체제의 집요한 막후교섭이 없이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당국이 미국과의 동맹의 골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 골결음이 미국제전투기 도입결정을 철회하고 새형의 전투기개발을 전면적제로 하는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단체는 집권자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중앞에 사과하며 미국제전투기 도입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는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참가관 및 개관식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루르네스 세르반테스...

멀미잡힌 전법자의 잔 쩌

《경희》와 《인견》을 펴며 《국제혁명》 노릇을 하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특목 기교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아프리카...

이것이 《인견》을 펴며 《국제혁명》 노릇을 하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특목 기교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아프리카...

이것이 《인견》을 펴며 《국제혁명》 노릇을 하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특목 기교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아프리카...

이것이 《인견》을 펴며 《국제혁명》 노릇을 하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특목 기교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아프리카...

독립국가협동체 수뇌자회의 진행

독립국가협동체 수뇌자회의가 16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국제연대투쟁에...

원유전쟁은 누가 왜 일으켰는가

미국은 국제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오메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그 존재 자체도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세력 그룹은 두해전에...

발전하는 꾸바의 문화

꾸바의 문화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1959년 혁명승리가 이룩된 지 50년째를 맞아 100만명 이상이 문화행사에 참가했다. 꾸바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학, 보건, 문학예술, 체육 등 문화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켰다.

레오와 그의 투쟁강화 호소

에리트레아 총리 이브라힘 파라호 알 세이와 튀니지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지 가이드 샷 세피가 4일 회담상에서 레오를 반대하여 국제적협조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그들은 레오와 쿠단족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